

지역 소식통

부안군 민원서비스
행안부 평가 '최우수'

부안군 민원서비스가 행정안전부 종합평가에서 전북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가등급) 평가를 받아 자율·적극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부안군은 행정안전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전북도를 포함한 전북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시도교육청, 광역시도, 기초지자체)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으로 실시했다.

부안군은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민원처리 적정성, 법정·고충민원 만족도 등에서 높게 평가 받았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고창군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또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함께 더불어사는 고창군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사업비 7억원을 지원해 전일제 21명(주 5일, 40시간), 시간제 5명(주 5일, 20시간), 복지일자리 24명(주14시간 이내, 월56시간) 등 전년 대비 14% 증가한 총 50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 선발은 지난달 서류전형과 장애인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면접을 통해 개인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관련 사회복지 시설에서 행정보조, 환경정화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관광개발계획 반영 확정

부안 격포 관광단지 조성 탄력... 민간사업자 유치 성공

부안군은 민선 7기 격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침체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 유치에 성공하여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각종 인·허가 및 기본설계 업무를 추진할 용역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지 조사, 지형 현황측량, 지질물 측량 등 과업을 완료했고, 환경·교통·재해 등 각 분야별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2021년부터 제7차(22년~26년) 전라북도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전북권의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전략이 담겨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관광 여건, 동향, 수요 분석 및 관광(단)지 조성과 그 밖의 관광자원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루고 있다. 이에 부안군은 격포 관광단지를 전라북도 관광 개발계획에 반영을 위해 문체부 현장실사 시 거론된 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였고, 전라북도 전라연구

원과 지속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였다.

부안군 전라북도, 전북연구원의 협업으로 사업계획의 구성, 관광단지 지정 필요성, 부안군 관광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설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21년 12월 31일 제7차 전라북도 관광 개발계획에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부안 격포 관광단지가 최종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후 다양한 시설 도입을 위해 사유지 매입 협의를 추진 중이며, 전체 사유지 면적 대비 60% 정도 계약 및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2년도 상반기 내에 토지 소유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남은 사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이 지난 13일 고창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위촉식을 갖고, 황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진정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이학고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교수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위해”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촉장 수여

고창군이 지난 13일 고창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위촉식을 갖고, 황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진정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이학고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교수를 각각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 옛도심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옛도심지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으로 임명했다.

황지욱 센터장은 지난 2019년부터 고창군 도시재생 사업의 총괄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고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모양성마을과 옛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국토부 공모 선정에 노력해왔다. 고창군의 중간지원조직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현안 사업에 전문 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진정 센터장은 지난 2020년부터 고창군 모양성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총괄

코디네이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건축물 자문, 고창군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이학고 센터장은 농정자문위원과 글로벌푸드컬처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이력을 바탕으로,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추진되는 사업을 연계, 조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황지욱 센터장은 “고창군 도시재생 사업의 총괄, 조정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됨으로써 내실 있는 고창군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센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 교육비 부담 덜어줘

정읍시, 사회적 약자층 자녀 400명에 1인 최대 81만원 지원

정읍시가 올해도 지역 내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은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선정된 과목을 제외한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문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등 학생이다.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67명

늘어 총 4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 5억4,000만원(시비 3억2,400만원, 학원 부담 1억6,200만원, 학생 부담 5,400만원)을 투입해 학생 1인당 월 9만원 씩 9개월간 최대 81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은 물론 돌봄과 복지서비스 등의 연계를 제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습활동 등 청소년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부진

했던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 등 특기적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지시책 추진 시 민간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자격증 취득 등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 서울시 교육청 등 8개 기관 시범마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는 지난 13일 서울시 교육청 강당에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마을 구축을 위해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대표, 농촌유토피아연구소 소장, 농촌유토피아대학 대표, 고성군 곡성군 해남군은 행·재정 지원과 함께 시범마을의 성격에 맞는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추진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모집하고,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도시와 농촌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문화 인프라를 갖춘 일정한 규모의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와 농촌유토피아대학이 시범마을의 기본디자인과 자원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주관하며 정읍시와 고성군, 곡성군, 해남군은 행·재정 지원과 함께 시범마을의 성격에 맞는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추진하게 된다.

정읍시와 고성군, 곡성군, 해남군은 행·재정 지원과 함께 시범마을의 성격에 맞는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추진하게 된다.



유진섭 시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도래했지만, 귀농·귀촌 성과광가서 도내 1위, 전국 2위를 차지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성군, 곡성군, 해남군과 함께 농촌유토피아를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전북형 청년수당 월 30만원 지원

정읍시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2022년 전북형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북 청년 지역 정착지원사업’은 취업 초기 청년의 낮은 임금을 보전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0만원 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신용카드(체크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에서 건강관리나 자기개발, 문화 레저, 일반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는 전라북도 내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122명이다. 지원 분야는 농업과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

예술, 연구소기업 등 총 6개 분야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으며 전북도 내 최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 소득 기준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각 분야별로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www.jb2030.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청년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